

韓語中「가운데」與「중」 意義比較研究*

李京保**

國立高雄大學

摘要

本研究透過擷取「가운데」和「중」的搭配結構(前置成分 + 核心字 + 後置成分)，分析並描述它們的語義，並揭示這兩個字的語意重疊和互補關係。研究發現，「가운데」和「중」共形成八種搭配結構，涵蓋六個不同的語意領域。「가운데」主要表示<空間位置>、<數量範圍>和<狀態持續情況>的意義，而「중」則主要與時間概念相關，表示<數量範圍>、<時間範圍>、<動作持續時間>和<動作進行中>的意義。值得注意的是，在這兩個詞中，最常出現的語意領域是<數量範圍>，在這個意義中存在語意重疊現象，而在其餘五個語意領域中，則呈現出明顯的互補關係。

關鍵詞：가운데、중、意義、意義重疊、互補關係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2 Korean Studies Grant Program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R-092).

** 國立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教授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nings of “가운데” and “중” in Korean

Kyong Bo Lee*

Natinal University of Kaohsi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mantic distinctions between the Korean words “가운데” and “중” by extracting and analyzing their collocational structures (combinations of preceding element + headword + following element) to describe their realized meanings. It explores the patterns of semantic overlap 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word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가운데” and “중” form a total of eight collocational structures, resulting in six distinct semantic domains. The word “가운데” predominantly conveys meanings related to <spatial location>, <quantitative range>, and <state duration>, whereas “중” is primarily associated with <quantitative range>, <temporal range>, <duration of action>, and <ongoing action>, often reflecting temporal concepts. Notably, both words show semantic overlap in the <quantitative range> domain,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meaning for each. In the remaining five semantic domains, a clear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ds is observed.

Keywords: 가운데, 중, meaning, overlapping mean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 Professor of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Natinal University of Kaohsiung.

“가운데”와 “중”의 의미 비교

이 경보*

초록

본 연구는 유의쌍의 “가운데”와 “중”의 의미를 결정짓는 언어구성(선행요소+중심어+후행요소)을 추출해 내어 그가 실현하는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두 낱말의 의미중첩 양상과 상보적 관계에 대해 밝혔다. “가운데”와 “중”은 총 8종의 언어 구성을 이루며, 6가지의 의미 영역으로 귀결되었다. “가운데”는 주로 <공간 위치> <양적 범위> <상태지속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고, “중”은 주로 <양적 범위> <시간 범위> <동작 진행 기간> <동작 진행 중>으로 시간 개념과 관련되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낱말에서 각각 가장 출현도수가 높은 <양적 범위>라는 의미 영역에서 두 낱말의 의미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외의 5가지 의미 영역에서는 뚜렷한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키워드: 가운데, 중, 의미, 의미중첩, 상보적 관계

* 국립가오슝대학교 교수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어의 공간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유의 관계로 공존하는 것이 있다. “가운데”와 “중”은 그 중의 하나다. 고유어 “가운데”와 한자어 “중”은 각각 다의어로서, 이 둘은 의미상 중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가운데”와 “중”의 의미에 대해,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은 순환적 의미 기술적인 면이 있고, 각각의 의미 항목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가 실현되는 조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의쌍에 대해 중첩되는 의미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유의쌍인 “가운데”와 “중”의 사용 변별은 모어화자와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운데/중”의 앞의 요소 즉, 선행요소에 주목하여 “가운데/중”의 의미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중”의 의미를 선행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1-1) ㄱ. 이달 중에 준비작업을 갖추고...

ㄴ. 이곳 풍광이 아름답기로는

1년 중 4월이 제일일 듯하다.

(1-2) ㄱ. 그들은 마을 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남은

촌장의 집으로 갔다.

ㄴ. 세 마을 가운데서 가구 수도 제일 많고 전답도 제일 많았다.

(1-1)의 경우 ㄱ과 ㄴ의 선행요소인 “이달” 1년은 다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이지만, ㄱ의 “중”은 “준비작업을 갖추고”라는 동작이 행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반면 ㄴ은 1년이라는 시간 범위 안의 4월이라는 <범위>를 나타낸다. (1-2)의 경우 ㄱ, ㄴ의 선행요소가 동일한 “마을”이다. ㄱ의 “가운데”는 “촌장의 집”이 위치하는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반면, ㄴ의 “가운데”는 “세 마을”이라는 한정된 집합 내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품사, 동일한 성질의 낱말과 결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날말(가운데/중)의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ㄴ의 선행요소는 시간 명사, (1-2)ㄴ의 선행요소는 일반명사와 같이, 선행요소의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말의 의미가 동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선행요소만에 주목하여 “가운데/중”의 뜻을 밝히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기존연구에서는 이 두 날말이 나타내는 의미 및 그 실현 조건에 대해 아직 충분히 고찰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말뭉치의 용례를 바탕으로, 공식적 관점에서 다의어인 “가운데”와 “중”이 나타내는 개개의 의미와 그 실현 조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또한 그 의미들이 어떠한 분포도를 형성하는지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의미에서 두 날말이 중첩되고, 어떠한 의미에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말뭉치에서 용례를 추출해 내어, 그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말뭉치에서 “가운데”와 “중”을 검색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¹ “가운데”는 전부 일반명사로 쓰이는 반면에 ‘중’은 일반명사, 의존명사, 고유명사로 쓰인다. 그리고 용례 수를 비교해 보면 “중”이 “가운데”보다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 말뭉치에서의 “가운데”와 “중”의 용례 수

	일반명사 (NNG)	의존명사 (NNB)	고유명사 (NNP)	총계
가운데	61,417	-	-	61,417
중	11,365	168,696	5,035	185,096

본 연구는 유의 관계에 있는 “가운데”와 “중”의 의미를 비교

¹ 구체적인 검색 방법은 현대 한국어 용례 검색기-SJ-RIKS ext.-형태소 검색/완전 일치로 설정했다. SJ-RIKS ext.는 코퍼스 확장관(형태분석)으로서 어절 수가 116,065,151 개이다. <https://riks.korea.ac.kr/1>

분석하기 때문에 “중”에 대해서는 “가운데”와 유의 관계에 있는 의존명사만 고찰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의미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의 문장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표1에 있는 방대한 용례수에서 “가운데”와 “중”을 각각 600개를 추출하여 고찰 대상으로 했다. 600개는 검색창에서 “신문/잡지/책(상상)/책(총류)” 각 장르별 150개씩을 추출했으며, 추출 방법은 1번에서 150번을 대상으로 했다. 1차적으로 추출해낸 용례에서 제외 대상이 24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만큼 추가로 추출했다. 따라서 “가운데”와 “중” 각각 600개, 총 1200개의 용례가 본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실증적 관점에서 낱말의 의미는 문장에서 함께 쓰인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에 의해 실현된다는 언어의 개념에 기초하여, “가운데”와 “중”의 의미 실현 조건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또한 “가운데”와 “중”의 의미영역을 비교 분석하여 이 둘의 의미중첩과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공간어(공간말)를 둘러싼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으며, 근년에 들어와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공간어의 의미전이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고들이 많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운데”와 “중”의 연구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가운데”와 “중”의 연구

“중”과 “가운데”를 비교한 연구로는 최은복(2016)이 있다. 최은복(2016)은 선행요소에 주목하여 “중”과 “가운데”의 異同을 지적했다. 그는 선행요소를 수사, 보통명사, 시간명사, 동사성명사, 지시어,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으로 나눠 의미 분석 및 “중”, “가운데”와의 결합 여부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최은복(2016)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과 “가운데”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선행요소를 분류한다면 그에 적절한 용어 및 하위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명사는 단순히 점의 시간이 아니라 기간을 함의하거나 기간을 나타내는 낱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8시’는 “중”의 선행요소로 올 수 없으나 ‘8시간’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명사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명사가 전부 포함되는데,

“중” “가운데”의 의미 고찰을 위한 분류라면 이 또한 하위분류가 필요하다. 또한 최은복(2016:26)은 “중”은 동사와만 결합하는 반면에 “가운데”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지겠지만, “가운데”와 결합하는 선행 동사의 대다수는 “중”과 결합하는 선행 동사와 의미적 성질이 사뭇 다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선행요소의 품사에만 주목하고, 의미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최은복(2016)에서는 선행요소에 근거하여 “중”과 “가운데”의 의미를 논했지만, 앞의 (1-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품사, 심지어 동일한 낱말의 선행요소라고 해도 “중”과 “가운데”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품사, 성질의 선행요소라도 해당 낱말의 의미가 동일하기도 한다. 이는 선행요소에만 국한하여 “중”과 “가운데”의 의미를 밝히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은복(2016)은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에 따른 “중”과 “가운데”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 수치로 제시하겠지만, 해당 낱말과 결합하는 선행요소의 품사 분포 양상을 보면 “가운데”와 “중” 둘 다에서 명사가 가장 많고, 명사, 동사, 관형사, 형용사가 다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² 출현도수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품사에만 주목한다면 양자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최은복(2016)은 “중”과 “가운데”가 시간명사와 다 결합하여 공통적인 쓰임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시간명사를 선행요소로 취하는 것은 “중”이 일반적이고, “가운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은복의 주장은 실제 사용 양상과 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양의 자료 및 그 출현도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은복(2016)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출현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은복(2016)은 공간어의

² 본 연구 자료 1200개에 대해 선행요소의 품사별 출현 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	동사	관형사	형용사	없음	합계
가운데	372	113	68	25	22	600
중	490	34	73	3	0	600
합계	862	147	141	28	22	1200

(없음: 선행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²

가장 기본이 되는 구체 공간, 즉 장소 명사를 선행요소로 취하는 “가운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2.2. 한중 대조 연구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에서 “중”과 “가운데”를 논한 연구로는 刘伟(2019)와 방진우(2019)가 있다. 刘伟(2019)는 중국어의 “中”과 한국어 “중/가운데”를 대조 연구했는데, 그는 앞서 언급한 최은복(2016)에 대해, 선행요소의 품사에만 주목하여 “중/가운데”를 고찰한 점을 비판하고, 품사와 의미적인 측면에서 하위 분류를 하여, “중/가운데”의 의미를 분석하고,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등을 지적했다. 刘伟(2019)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과 “가운데”는 둘 다 공간 명사와 결합하는 예가 적으며, 또한 이들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에/에서” 혹은 “속”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은 주로 동작 과정을 함의하고 있는 동사 및 명사(일부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작 혹은 상태 지속 진행(과정) 중”을 나타낸다. 한편 “가운데”는 형용사(구)와 결합하여 “상황, 상태(배경)”을 나타낸다고 했다.

刘伟(2019)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실제 사용과 괴리가 있어 보이는 점들이 있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가운데”와 “중”은 둘 다 선행요소를 일반명사로 취하는 예들이 매우 많으며, “가운데”는 장소 명사를 선행요소로 취하는 예가 적지 않다. 또한 장소 명사와 결합하는 해당 낱말이 필수 성분이 아니고 “에/에서”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체 전후의 의미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刘伟(2019)의 문제점들은 말뭉치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은복(2016)의 연구의 일부를 비판없이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刘伟(2019)는 선행요소를 의미적인 측면에서 하위분류해서 고찰한 점은 최은복(2016)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가운데”의 의미를 결정짓는 조건은 선행요소만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요소만으로 “가운데”와 “중”의 의미 실현 조건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방진우(2019)는 “중”과 중국어 “中”의 의미와 선행요소와의 결합관계에 주목하여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방진우(2019)는 “중”의 의미를 선행요소의 품사별(일반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로 분리하여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표준대국어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다. “중”의 의미는 주로 선행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방진우(2019)는 최은복(2016)에서 밝힌 내용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가운데/중”의 선행요소에 주목하여 “가운데”와 “중”의 의미 차이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선행요소에만 주목하여 이들의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면 중의적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두 낱말의 의미 영역을 비교함에 있어서 빈도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용의 가능성보다 사용의 표준성이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도수를 제시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차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운데”와 “중”의 의미 비교에 대해, 단어차원인 선행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문장 속의 의미구조체라는 차원에서 중심어(가운데/중)의 의미를 결정짓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결합관계에 주목하여, “가운데/중”를 중심으로 한 구성에 입각하여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미별 출현도수 및 호환 가능 여부에 주목하여, 두 낱말의 의미중첩과 상보적 관계를 밝힐 것이다.

3. 연어 구성과 의미

본 연구에서는 “가운데/중”의 의미를 결정짓는 구조 즉, “선행요소+X(가운데/중)+후행요소”의 연어 구성을 추출하고, 그 연어 구성에서 “가운데/중”이 실현하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3.1. 【장소+X+동작/존재】

- (2) ㄱ. ...김두수는 방 가운데 뻗치고 서서 지긋하게 바라볼 뿐, 말이 없다.
 ㄴ. 운부는 다시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호미를 들고 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ㄷ. 정원 가운데 흰 국화, 노랑 국화가 송이송이 어울려 있고...

이 부류의 구성은 선행요소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후행요소로는 동작 혹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구가 온다. 이러한 구성은 “가운데”에서만 볼 수 있다. 【장소+X+동작/존재】 구성의

“가운데”는 “구체 공간에서의 중앙부, 중심부”를 나타내며, 이는 <공간 위치>라는 의미 영역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구체 공간에서의 중앙부, 중심부는 화자의 시각에서 묘사되는 주관적인 공간적 위치일 때도 있다. 다음의 예는 선행요소의 장소가 열린 공간인 경우이다. 이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개방적인 장소이며, 이러한 낱말이 선행요소로 쓰이면 “화자의 시각에서의 구체 공간의 중앙부, 중심부”라는 <공간 위치>를 나타낸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부류에는 (2)보다 (3)과 같은 열린 공간을 나타내는 장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2)(3)의 선행요소의 장소는 낱말 자체에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ㄱ. ... 들관 가운데 붉은 색의 깃대가 꽂혀 있었고...

ㄴ. 망망한 바다 가운데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ㄷ. 숲 가운데 서원(書院)의 기와 지붕들이 보였다.

이 부류의 “가운데”는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 뒤에 “에” “에서” “로”를 덧붙여 나타나는 예((2)ㄴ, (4)ㄱ-ㄴ)가 적지 않다. 앞의 (2)ㄱ은 “가운데”의 뒤에 “에서(/서)”를, (2)ㄷ과 (3)은 “에”를 덧붙여도 문장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4)ㄷ과 같이 “은/는”을 덧붙여 주체어로도 쓰이고, (4)ㄷ과 같이 “을/를”을 덧붙여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劉偉(2019)에서 공간 명사와 결합하는 예는 기본적으로 “에/에서”로 대치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2)와 같은 경계선이 있는 장소 명사와 어울리는 경우, “가운데”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ㄷ을 예로 들면, “정원에”와 “정원 가운데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는 곳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ㄱ. 정면 길 가운데에 날이 시퍼런 환도를 빼들고 선
 텃석부리 사내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ㄴ. 고향집 마당에서, 또는 동네 가운데서 여럿이서
 바라보는 추석달이라야 마냥 반갑고 즐겁고 정답다.

ㄷ.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숲 가운데는 벌써 어둠이 가득
 차기 시작하였다.

ㄷ. 일행은 눈이 뒤덮인 들관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는데...

다음의 예는 선행요소가 “어둠”이라는 자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후행요소인 동사가 “뛰어내리다”이다. 따라서 선행요소는 ‘어둠이 깔린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 부류에 포함된다.

- (5) 몸을 솟구쳐 간신히 담장 위에 올라선 이경순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로 뛰어내렸다.

3.2. 【구체물+X+존재】

- (6) ㄱ. 머리 가운데에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고,
 ㄴ. 코끝에는 1 개의 돌기가 있다.
 ㄷ...등의 가운데와 어깨에는 검은 털이 많다.

이 부류는 선행요소로 구체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고, 후행요소로 존재(있다, 많다)를 나타내는 존재사구의 구성이다. 선행요소의 구체물에는 구상 물체를 비롯하여 신체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체물은 본래 공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3.1과 구별된다. 이 부류의 선행요소로는 본 자료에 의하면 신체어의 예가 많았고 일반 구체물의 예는 적었다. 【구체물+X+존재】 구성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운데”이며, 이러한 구성의 “가운데”는 “한 물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앙부, 중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도 <공간 위치>라는 의미 영역의 하나라 하겠다. 이 부류의 “명사+가운데”는 문장에서 부사어 외에 주어(/주제)나 목적어로도 쓰인다.

이상의 【장소+가운데+동작/존재】 【구체물+가운데+존재】 의 “가운데”는 공간어의 의미 중 가장 기본적 의미인 구체적인 <공간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연어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운데”에서만 볼 수 있고, “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³ 따라서 <공간 위치>는 일반적으로 고유어 “가운데”가 담당하며, “중”과의 의미중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³ “중”의 용례 중에 “공기” “대기”와 결합하는 예가 있었다. “공기” “대기”와 결합하는 “중”은 “속”과 대치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공기/대기”와 같은 기체를 나타내는 낱말에 국한하고 있다.

3.3. 【수량(전체) +X+ 수량(부분)】

(7-1) ㄱ. 104 곡의 교향곡 가운데 45 제 번 작품이다.
 ㄴ. 현재 미국인구 2억 4천만명 가운데 코카인 등 마약 인구는...

(7-2) ㄱ. 이미 국립과학관 직원 90 명 중 50 명을 19일자로 대덕의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발령냈습니다.
 ㄴ. 세계 14 개 주요 어장 중 6 개 어장이 대서양에 있다.

이 부류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로 전부 수량을 포함한 명사구가 오는데,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수량은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가운데”와 “중”에서 다 볼 수 있다. 이 부류는 선행요소에서 제시된 수량 이내의 일부를 나타내며, “가운데/중”은 수량의 한정 범위(이하, <양적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언어 구성에서의 “가운데”와 “중”은 일반적으로 상호 대치가 가능하다. (7-1)의 “가운데”는 “중”으로, (7-2)의 “중”은 “가운데”로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적 범위>라는 의미는 “가운데”와 “중”에서 의미중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3.4. 【집단+X+ 구성요소】

(8-1) ㄱ. ...국내제철그룹의 중공업 업체 가운데 이 회사만 유일하게 분규가 없어...

ㄴ. 정통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휴먼컴퓨터의 정철 씨와...

(8-2) ㄱ. 5.16쿠데타 주역 중의 한사람으로 참여했던 김씨는...

ㄴ. 박전최고위원의 도쿄 발언 중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류는 선행요소로는 후행요소와의 관계에서 집단이나 그룹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고, 후행요소로는 선행요소에서 제시된 집단/그룹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명사가 오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가운데”와 “중”에서 다 볼 수 있고, “가운데/중”은 “어떤

한정된집합혹은 그룹 내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는 <양적 범위>라는 의미 영역의 하나라 하겠다.

이상의 【수량(전체)+가운데/중+수량(부분)】 【집단+가운데/중+구성요소】는 “가운데”와 “중”이 <양적 범위>를 나타내며, 이 둘은 일반적으로 상호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중첩이 일어난다고 하겠다.

3.5. 【시간 기간+X+사태】

- (9) ㄱ. 문목사는 이와 함께 교육기간 **중** 신도들을 유명관광지로 보내…
 ㄴ. 쿠웨이트인들은 일부 오전 **중**에 사우디쪽으로 빠져 나갔다.
 ㄷ. …장마기간 **중** 수재가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ㄹ.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부류는 선행요소로는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9) ㄱ, ㄷ, ㄹ) 혹은 (9) ㄴ과 같이 시간의 폭을 지닌 시간 명사가 오고, 후행요소로는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구, 형용사구가 오는 구성이다. 여기에서 사태라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구((9) ㄱ, ㄴ)을 비롯하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구((9) ㄷ)이나 비동작성의 동사구((9) ㄹ)을 묶어 말하는 것이다.

이 부류는 “중”에서만 볼 수 있으며, 【시간 기간+중+사태】 구성은 “일정한 시간적 범위 안에 어떤 사태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구성의 “중”은 “일정한 시간적 범위” (이하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 구성의 “중”은 문장 안에서 후행요소가 나타내는 사태의 발생 시간이 되기 때문에 (9) ㄴ, ㄹ과 같이 “중”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를 덧붙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9) ㄱ, ㄷ은 “중” 뒤에 “에”가 없지만 “에”를 덧붙여도 문장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만일 선행요소에만 주목한다면 다음의 (1-1)의 선행요소(“이달, 1년”)은 둘 다 시간 명사이어서 “중”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이 둘의 ‘중’은 다른 연어 구성에서 쓰였기 때문에 “중”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1-1) ㄱ은 【시간 기간+중+사태】 구성의 “중”이고, (1-1) ㄴ은 【집단+중+구성요소】

구성의 “중”이므로, 전자의 “중”은 <시간 범위>를, 후자의 “중”은 <양적 범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선행요소에만 주목해서는 “가운데”와 “중”이 실현하는 의미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 (1-1) ㄱ. 이달 **중**에 준비작업을 갖추고... <시간 범위>
 ㄴ. 이곳 **풍광**이 아름답기로는 1년 **중** 4월이 제일일
 듯하다. <양적 범위>

이상으로 【시간 기간+X+사태】 구성은 “중”에서만 볼 수 있으며, “중”은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시간 범위>라는 의미 영역은 “중”이 실현하는 의미로서 “가운데”와의 의미중첩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3.6. 【동작+X+동작】

- (10-1) ㄱ. 전쟁 **중**에 헤어진 옛 여인을 찾는 남자의
 애절함이...
 ㄴ. 중학교 재학 **중**에 빨치산대원으로 차출되어 왔다는 겁니
 다.
 (10-2) ㄱ.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ㄴ. 브래들리가 별의 시차를 측정하던 **중** 발견하였다.

이 부류는 선행요소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 명사(10-1) 혹은 동작동사(10-2)이고, 후행요소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성이다. 이 구성은 “가운데”의 용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중”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선행요소인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에 후행요소가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은 <동작진행 기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 부류의 선행요소 중 동작성 명사는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1개의 낱말(“마련”) 외에 전부 한자어(예, (10-1))이다. <동작진행 기간>의 “중”인 경우, 선행요소가 동작성 명사인 예가 26개, 동사인 예가 19개로 명사인 예가 많다.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관형형전성어미이며, 현재형(“는”) 혹은 “던” 형태를 취한다. 현재형(“는”)을 취하면 현재 진행의 동작((10-1) ㄱ-ㄴ)을 나타내고, “던” 형태를 취하면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10-2) ㄴ) 혹은 미완성의 동작을 나타낸다.

이 부류의 “중”은 후행 동사의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에”를 덧붙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10-1)ㄷ, (10-2)ㄴ은 “중” 뒤에 “에”를 덧붙여도 문장의 뜻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구성의 “중”은 “에서”와 결합하는 예는 없다.

이 부류의 연어 구성은 대다수가 “중”에서 볼 수 있는데, “가운데”의 예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11)은 선행요소가 동작성 동사라고 볼 수 있는 예이다. (11)은 선행요소의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행요소의 동작이 일어남(<동작 진행 기간>)을 나타낸다. 이는 위의 (10)의 “중”과 동일한 의미이다. 선행 동사의 관형형전성어미의 형태에 있어서 “가운데”는 현재형 “는”에 제한된다는 점에 있어서, “중”의 관형형전성어미 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 ㄱ. ... 그를 안내하는 전방의 육군소령이 브리핑하는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말이다.

ㄴ. ...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 및 번영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가운데”가 동사구를 선행요소로 취하는 예는 113개이며, 그 중 (11)과 같이 <동작진행 기간>을 나타내는 예는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3.8의 부류이다. (10-1)(10-2)의 “중”과 (11)의 “가운데”에 대한 호환 가능 여부를 살펴 보면, “중”을 “가운데”로 대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반면, “가운데”는 “중”으로 대체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문장의 뜻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작진행 기간>은 “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가운데”의 극소수 용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작진행 기간>은 의미중첩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3.7. 【동작+X】

(12) ㄱ.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ㄴ. 그날도 우리들은 지루한 장마에 간혀 왜식 건물의 넓은 이층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었다.

ㄷ. 나머지시설은 계속 임시사찰을 받아오던 중이었다.

이 부류의 선행요소는 앞의 3.6과 동일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성 명사, 동작 동사인데, 해당 낱말이 문말에 쓰여 후행요소의 문장 성분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 구성은 “중”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부류의 “중”은 선행요소가 나타나는 동작이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이하 <동작진행 중>). <동작진행 중>의 “중”의 선행요소는 “동작성 명사”의 예가 80개이고, 동사의 예는 15개로서 명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동사인 경우는 “고 있다/는다”형태로 <동작진행 중>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명사인 경우에는 “고 있다/는다”형태를 취해 <동작진행 중>을 나타낼 수 없으며 게다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같은 어종인 “중”과 결합하기 쉽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작진행 중>은 <동작진행 기간>과 마찬가지로 “중”에서만 볼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운데’와의 의미중첩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8. 【상태+X+사태】

(13-1) 가. … “올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도 연말까지 64억

달러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나. 유위원은 위원회 사무가 바쁜 가운데도 종환과 연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였다.

다. … 정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공화당의 동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3-2) … 그 황망한 중에 돌아왔다는 인사를 올린 이 부류는 선행요소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성 동사, 후행요소로는 사태를 나타내는 용언의 구성이다. 여기에서의 상태성 동사는 형용사를 비롯하여 비동작성 동사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은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의 사태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그를 둘러싼 상황 혹은 배경이 ‘가운데/중’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운데/중”은 <상태지속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음의 예는 선행요소가 동사이긴 하나 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상태를 나타내는 예이다. (14)의 선행요소의 경우 “봄을 이루다”

“분위기가 계속되다” “관심이 고조되다”는 비동작성의 동사구이며,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다”는 자연 현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선행 동사가 관형형전성어미의 현재형(“는”)을 취하고 있어도 동사구가 비동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 진행을 나타내지 않고 상태를 나타낸다.

(14) ㄱ. ... 할리우드의 만화영화들이 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역시 할리우드에서 만든 만화영화 ‘알리딘’...

ㄴ. ... 강력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조선일보사에 한 전과자로부터 ...

ㄷ. ... 바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돼 있는 가운데
출시된 이 제품은...

ㄹ. 취임식이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거행됐다.

다음 (15)의 경우는 선행요소가 “참석하다”라는 동작성 동사이나 과거형의 관형형전성어미를 취함으로써 동작이 종결되어 그 동작의 결과가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부류에 포함된다.

(15) ... 후배 음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월 노래비’ 제막식이 베풀어졌다.

선행요소로 동사를 취하는 것은 ‘가운데’가 총 113개로, “중”(34개)에 비해 3배 정도 출현도수가 높다. 그리고 그 113개의 “가운데”는 (14)와 같이 <상태지속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앞의 (11)과 같이 <동작진행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소수(4개)에 불과하다.

선행요소로 상태성 동사를 취하는 것은 “가운데”가 주를 이루고, “중”은 (13-2)의 “황망하다”를 포함한 3개의 용례 뿐이다. 방진우(2019:22)에서도 선행요소가 형용사인 ‘중’은 전체 수 501개 중 2개(0.3%)에 불과하다고 했다. 위의 (14)-(15)의 “가운데”는 “중”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상태지속 상황>의 “가운데”는 “중”과의 의미중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3.9. 정리

표3 '가운데/중'의 연어 구성과 의미

구성	의미	가운데	중
【장소+X+동작/존재】	공간 위치	○	-
【구체물+X+존재】			
【수량(전체)+X+수량(부분)】	양적 범위	○	○
【집단+X+구성요소】			
【시간 기간+X+사태】	시간 범위	-	○
【동작+X+동작】	동작진행 기간	-	○
【동작+X】	동작진행 중	-	○
【상태+X+사태】	상태지속 상황	○	-

(-: 본 연구 자료에 전무이거나 극소수임)

앞에서 살펴본 “가운데”와 “중”이 실현하는 연어 구성과 그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와 “중”이 실현하는 연어 구성은 총 8종으로 분류되며, 그 연어 구성은 6가지의 의미 영역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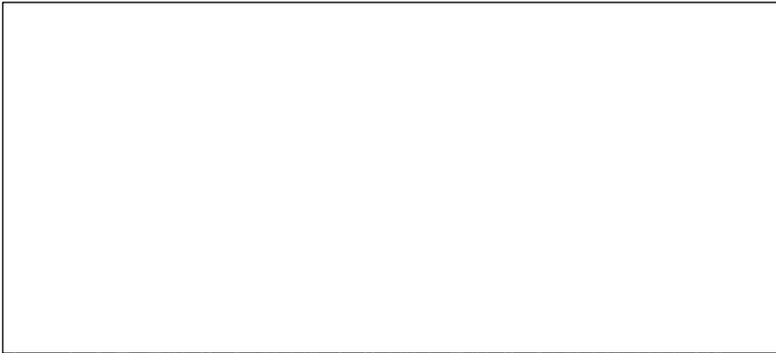
4. 의미중첩과 상보적 관계

여기에서는 앞의 표3에서 제시한 6종의 의미 영역이, “가운데”와 “중”에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드러내는지 밝히고자 한다.

표4 ‘가운데’와 ‘중’의 의미 분포율

	가운데		중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간 위치	126	21.0%	7	1.1% ⁴
양적 범위	314	63.8%	377	62.8%
시간 범위	1	0.1%	64	10.6%
동작진행 기간	4	1.0%	51	8.5%
동작진행 중	-	-	95	15.8%
상태지속 상황	155	25.8%	2	0.3%
관용 표현	-	-	4	0.6%
총계	600	100%	600	100%

유의쌍의 “가운데”와 “중”은 그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두 낱말 사이에는 의미중첩이 있는가 하면, 여러 의미 영역에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낱말 간에 서로 다른 역할 분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1에 제시한다.



의미를 실현한다. 두 낱말에서 <양적 범위>의

⁴ 객주4 참조.

출현도수가 가장 높으며 이 의미 영역에서 두 낱말의 의미중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문 (7-1)(8-1)의 “가운데”는 “중”으로, (7-2)(8-2)의 “중”은 “가운데”로 교체 가능함에서 잘 알 수 있다. 한편, <양적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의미 영역에서는 어느 한 쪽이 출현도수가 높으면 다른 한 쪽은 출현도수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공간 위치>는 공간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공간 위치>는 고유어인 “가운데”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중”은 한 자어로서 중국어 “中”에서 유입된 것이지만, 공간 의미를 나타내는 “中”과는 달리, “중”은 기본적으로 <공간 위치>는 나타내지 않는다.

공간어가 의미 확대되어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 여겨지고 있다. “중”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는 시간 개념의 의미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동작진행 기간>도 시간 개념과 관계가 깊으며, <동작진행 중>은 동작의 내적 시간을 나타내는 상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시간 개념과 관련된 의미 영역은 “중”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상이라는 문법적인 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의 前身인 중국어 “中”은 <시간, 공간, 상황, 범위, 상태의 지속>를 나타낸다.⁵ “중”이 일반적으로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시간 개념과 관련된 의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이 본래 지니고 있는 “中”의 의미 중 그 일부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의 관계에 있는 고유어 “가운데”와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의미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태지속 상황>은 시간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느슨해져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상황, 배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태지속 상황>은 “가운데”가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운데”와 “중”은 다양한 언어 구성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실현하는 다의어로서, 이 둘이 나타내는 6종의 의미 영역 중에 <양적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상호 교체가 자유롭고, 그 외의 5종의 의미 영역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⁵ 박지영(2014) 등 참고.5

5. 결론

본 연구는 “가운데”와 “중”의 의미를 결정짓는 언어 구성 및 그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했고, 유의쌍의 두 낱말 간의 의미중첩과 상보적인 관계를 출현도수 및 호환 가능 여부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가운데”와 “중”은 다양한 언어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3에 정리하였다. 두 낱말은 총 8종의 언어 구성을 이루며, 6가지의 의미 영역으로 귀결된다. “가운데”는 <공간 위치> <양적 범위> <상태지속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고, “중”은 <양적 범위> <시간 범위> <동작진행 기간> <동작진행 중>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낱말에서 각각 가장 출현도수가 높은 <양적 범위>라는 의미 영역에서 의미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외의 5가지 의미 영역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6종의 의미에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운데”와 “중”이 실현하는 의미를 언어 구성에 입각하여 그 실현 조건을 밝혔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언어 구성에 따른 분류의 출현도수 및 호환 가능 여부를 근거로 두 낱말 간의 의미 중첩과 상보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점도 본 연구의 성과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위’와 ‘상’, ‘아래’와 ‘하’의 의미 비교를 고찰하여 유의쌍의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어의 의미 영역을 밝혀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문식. 「“-ㄴ/는 가운데”구조의 시간개념화양상 고찰」, 『중국조선어문』 4, 2013.
- 김선희.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 7, 1988.
- 金恩惠. 「한일 내부공간명사 「안, 속」과 「うち, なか」의 의미영역」, 『일본어학연구』 33, 2012.
- 김진해. 「「연어의 계열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0.
- 박경현. 『현대국어의 공간개념어 연구』, 한샘, 1987.
- 박민수. 「한국어와 중국어의 방위사 “前, 后, 上, 下”의 비교분석」, 『비교문화연구』 13-1, 2009.
- 박지영, 한영균. 「코퍼스를 통한 현대 중국어 방위사 “中”의 결합 유형 연구」, 『중국어문학지』 41, 2012.
- 방진우. 「코퍼스를 활용한 한자어 의존명사 중(中)에 대한 한중 대비연구」, 『중국조선어문』 2, 2019.
- 손방원, 김한샘.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58, 2020.
- 손평호. 「공간말 “위”, “아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39, 2012.
- 유현경. 「「속」과 「안」의 의미 연구 -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한글』 276, 한글학회, 2007.
- 이문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국제어문』 65, 2015.
- 이문화. 「병렬말뭉치에서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2021.
- 정윤철.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공간표현 대조분석-한→중 작문오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36, 2005.
- 정현애. 「한국어 “안”과 “속”, 중국어 “里”와 “中”의 대조연구」, 『中國文學研究』 68, 2017.
- 정현애. 「현대중국어 방위사 上과 한국어의 대응양상 대조」, 『중국어문논집』 90, 2018.
- 진 현. 「“上”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X+上’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51, 2014.
- 최은복. 「방위사 중과 가운데에 대한 비교」, 『중국조선어문(6)』, 2016.
- 金昌吉. 「方位詞的語法功能及其語義分析」, 《內蒙古民族師院學報》 59, 1994.
- 杨義良. 「“NP 抽+上”結構式中方位成分的虛化及附綴化特徵分析」, 《新疆大學學報》 47-5, 2019.

- 刘伟。「現代漢語方位詞‘中’與韓國語‘중/가운데’對比研究」，
《중국어학보》87，2019。
- 方允炯。「形式名詞「なか」の意味と機能-明治期と現代との用例比較
を通じて-」，『日本語學研究』23，2008。
- 言語学研究会編。『日本語文法・言語論(資料編)』，むぎ書房，1983
。

Address for correspondence

Kyong Bo Le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700, Kaohsiung University Rd.,
Nanzih District, 811, Kaohsiung,
Taiwan

lkb1210@nuk.edu.tw

Submitted Date: June 25, 2024

Accepted Date: Sept. 2, 2024

